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재택 근무)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박순호 티모테아 (투스 평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집회 3,2-6.12-14

[화답송] 시편 128(127),1-2.3.4-5(◎ 1)



(후렴)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 - 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 - 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밭상에 둘러앉은 아들 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12월 교황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기도 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는 인격적 관계가 하느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더 굳건해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2독서] 콜로 3,12-21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복음] 루카 2,22-40

[성가안내]

- 입당성가 [114] 나자렛 성가정
- 봉헌성가 [109] 귀여운 아기들
- 파견성가 [113] 성 요셉과 성 마리아

미사 봉헌	
● 연기사	봉헌
정 선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김윤아 마리 김지영 유스티나
● 생기사	
엄기섭 안토니오 김한숙 카타리나 박현진 사도요한 이종환 토마스 아퀴나스	익명 김경련 울리타 연령희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성가대)	
12월 27일	이지훈 아녜스	박기웅 사도요한	박기웅 사도요한	민재인 데레사	양미숙 마리아	독서자는 미사 전, 제의방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제와 함께 행렬합니다.
1월 1일	백이백 아오스딩	이정현 헬레나	조규진 아녜스	조규진 아녜스		



목동이 있었다. 목동은 가슴앓이병을 지니고 있었다. 더 많은 양이 있는 남의 우리를보면 가슴이 답답했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곁을 지나면 가슴이 동동 거렸다.

주인으로 올라가는 친구를 보면 가슴이 저렸다. 목동은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이 일러준 대로 약을 써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다른 의원을 찾아가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이었다. 목동은 우연히 한 나그네를 만났다. 샘이 어디에 있는냐고 묻는 그에게 양젖을 한 사발 적선하자 청하지도 않은 말을 들려 주었다. "성령 아기를 맞으시오. 그리하면 당신 원이 풀리리다."

목동이 물었다.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디입니까?"

본당 게시판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5)

-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 전마지(마가렛) 이재호(클레멘트)
- 전마사자(카타리나) 김동희(헬레나)
-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 고종호(마태오) 지군자(스테파니)
-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 홍봉운(바오로)



"하늘에 영광이 가득할 때, 평화의 구유에서." 목동은 추운 밤, 어두운 들녘에서 성 아기를 기다렸다. 양을 지키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 아기를 맞게 하소서. 시든 풀잎에도 새 희망을 주시는 주님. 슬가지 같은 내 마음을 흰 눈으로 덮어 주소서.'

그날 밤에는 별이 유난히도 반짝이었다. 마른 풀잎이 기우는 소리도 들릴 만큼 세상 또한 고요하였다. 그때였다. 별 하나가 남쪽으로 흘렀다. '그렇다 저 별이다!' 목동은 별을 좇아 걸었다.

재를 넘는 목동의 발부리에 사람이 차였다. 기갈이 들어 쓰러진 나그네였다. "나를 좀 도와주소." 나그네가 애원하였다. "아니요. 나는 지체할 수가 없소. 어서 저 성 아기가 탄생하는 곳으로 가야 하오." "당신이 그냥 떠나면 나는 죽소. 나를 죽게 내버릴 것이오?" 목동은 생각했다. 성 아기를 보러 가면 양을 얻을지도, 여자를 얻을지도, 지위를 얻을지도 모르는 일. 그러나 목동은 발을 멈추었다. 외투를 벗어서 나그네의 몸을 싸고, 옆구리에 찬 통을 꺼내어서 우유를 따랐다. 우유를 받아 마시는 나그네가 은은하게 빛을 내더니 천사로 변하였다. 목동은 무릎을 꿇었다. "사랑하는 목동아, 일어나 성 아기를 맞으라." "성 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마음 한가운데 지금 태어나고 있지 않느냐." 순간, 목동의 가슴앓이는 씻은듯이 나았다. 마음 저 안쪽에 먼 하늘의 별처럼 성 아기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천 리 먼 곳에서 백 번 천 번, 성 아기가 태어나면 무엇 하느냐. 한 번이라도 네 깨끗한 마음을 구유로 청하여 태어난 성 아기가 소중한 것이다."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미사 안내]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미사 :
 - 토요일 4:00 pm
 - 일요일 8:00 am, 9:15 am(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 평일미사(영어) :
 - 월-금 7:30 am, 12:00 noon, 5:00 pm
 - 토 11:00 am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nyc.org>
"9:15 Korean Mass"

[지켜야 할 수칙]

- 마스크는 미사 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 미사 중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평화의 인사 등).
- 봉헌 : 봉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십시오.
- 영성체 : 영성체 전에 손 세정을 합니다.

2차 헌금

2021 달력배부 중입니다!!

2021 후보 광고(신청비 : \$200)

후보에 사업체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미사 전·후 윗성당 입구 재무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검색하세요.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오전 08:35 → 지하 성당 고해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건강교리	주일 10:50am-12:00pm, 클레어 룸

[복음 묵상]

유다인의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시는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계시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요셉의 마음은 먹먹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낳은 아기 예수님이 정말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지 확신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첫 아기를 봉헌하는 두 사람이 만난 늙은 예언자 시메온의 고백은 자못 진중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살면서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으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시메온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암흑의 역사를 살고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느님께서 죽기 전에 틀림없이 구원의 빛을 보여 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시메온의 눈은 어둠 속에서 빛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본 것입니다.

삶이 너무 괴로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고, 너무 억울하면 “내 눈에 흠이 들어가기 전에는”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찾으며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늙은 예언자 한나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남은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였을까요? 아마도 짓밟힌 예루살렘의 영화를 되찾는 날, 과부로 살 수밖에 없었던 한 많은 삶에도 하느님을 섬기며 믿어 온 영광의 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아픔을 겪을 성모님께서도 당신 고통을 세상을 위한 보속으로 봉헌하시며, 하느님 구원을 미리 맛보는 증인이 되십니다. 봉헌 생활의 날인 오늘, 수도자들의 봉헌된 삶은 바로 종말론적 희망, 곧 ‘지금-여기서’ 미리 맛보는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수도자들이 그런 봉헌의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임상 경험이 풍부한 MD들이 시술합니다



미백레이저
리프팅/탄력
얼굴윤곽시술
웨딩케어
맨즈케어
메디컬스킨케어

Clear Laser CITY CLINIC
501 5TH AVE. #2011, NY, NY
212.697.1802
ID: clearlascity



**뉴욕 맨하탄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님)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11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LIQUOR
WEST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인쇄·책 출판
당일 인쇄 가능**

EDDM Mailing Services/Yelp. Email Marketing

212.971.0212/ 268.2776
208 W. 29TH ST. #203 NY, NY 10001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김승범 분도 치과

2 WEST 46TH STREET SUITE 501 NY
212-779-3368
1585 PALISADE AVE FORT LEE
201-585-0404

맨하탄 미드타운 통증병원

==== **The Wellness Room** ====

물리치료사 : 김 미카엘
카이로프랙터/한의사 : 김소피아
212-302-2692

광고주를 찾습니다.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울뜨레아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FYMN)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밤 9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모경을 바치는 시간입니다.”